

15기 대경여대협 총노선 수립을 위한 2차 회의

★★ 대경여대협의 현황

대경여대협이 다시 건설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그간 지역 여학생운동이 그리 녹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를 세운 곳도 3군데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튼튼한 일꾼이 세워진 곳도 드물다. 객관적으로 지역 여학생운동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

몇 년간 대경여대협이 건설되지 못하다가 작년에 대경여대협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간 학교 단위로 개별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여학생운동이 지역 차원으로 묶여졌었다. 지역의 여학생운동으로서의 성과정도 많았지만, 우리 일꾼들이 대경여대협에 대한 상을 명확히 잡아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했다.

현재 대경여대협의 총여학생회 단위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대경여대협에 대한 학교별 요구성도 다를 것이다. 우리 지역의 여학생 운동을 하는 일꾼들에게서 대경여대협에 대한 요구성을 끌어내고 지역여대협의 모습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2004년 지역 총여학생회들의 조직적 현황을 짚어보면 대부분 기층단위가 없으며,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고 총여학생회 차원의 기층 단위 건설·강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부분의 총여학생회가 기층이 없는 채 총여학생회만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총여학생회 차원의 기층 단위 건설사업에 대한 고민정도도 낮다. 심지어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우가 있다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줄 기층 단위가 없어서 그 고민을 접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우들 역시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기반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여학생운동은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학우들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투쟁과 대중 조직화보다는 여학생회 일꾼들만 하는 운동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보니 여학생회가 광범위한 대중을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을 벌여가지만 기층의 지지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학생 운동의 흐름보다는 매년의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의 핵심역량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학생회 일꾼들이 우리의 투쟁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투쟁에 헌신복무하고 있지만 여학생회 단위의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자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여학생회 일꾼들의 준비정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학생 운동을 하는 일꾼 스스로 여학생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 운동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객관적인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일꾼들에게서 15기 대경여대협을 건설하려는 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도 드높아져 있다.

★★ 2004년 정세

우리 일꾼들은 여성정세에 가장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세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이다. 실제로 여성정세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거나 논란이 생기지 않는 한 한눈에 꿰뚫어보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여성계 내에서도 사안별로 시각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여성정세를 꿰뚫기 힘들다면, 여성운동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세를 주도하고 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러한 각오로 정세를 인식하고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 총선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발판을 이루어낼 것이다.

>> 우리민족제일주의기치들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는 2004년, 제2회 여성통일대회를 앞두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통일의 길에 떨쳐나설 것이다.

>> 여대생 실업문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화 문제 등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 212파문(일본군 <위안부> 누드 사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개정 등 여성운동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성과를 거머쥘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다.

>>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 역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투쟁이다.

★★ 2004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 2004년은 대경여대협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한해이다.

>>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 건설·강화의 요구성이 절실한 한 해이다.

>> 여학생 운동 대중화로 대경여대협을 강화하고 새여학생운동을 실현해야 하는 해이다.

>> 사상운동을 전개하여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해이다.

15기 대경여대협 총노선 기초 토론안

1.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을 건설·강화하자!

대구경북지역의 총여학생회들의 조직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여학생회가 과/단대 여학생회 형태의 기층을 가지지 못한 채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사업과 투쟁은 총여학생회만을 위한 사업과 투쟁이 아니라 학우들에 근간한 사업과 투쟁이라야 하는 것이지만 기층이 없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만으로 학우들에 근간한 사업을 벌여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여학생 운동은 여학생회 일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 대중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 대중과 함께 여학생회를 꾸리고 여학생 운동을 하려면, 여학우들 바로 곁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과 여학생회/과 소모임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들의 현재 여학생 운동의 현황에서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을 건설·강화하는 것은 여학생회 강화·발전에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 과/단대 여학생회 건설·강화 사업

****과/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 과/단대 여학생 일꾼 모임, 과/단대 여학우 모임

****1개과, 1단위 모범창출사업

- 소모임 사업

***1간부 1소모임 갖기 운동

여학생회 간부는 자기 대중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사업을 풀어나고 투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자기대중을 만들어보자. 소모임을 만들고 잘 운영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굳이 만들지 않고도 있는 소모임을 잘 발동해서 자신의 대중으로 만들어가도 좋다. 소모임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층 여학우들을 만나고 조직해내면서 소모임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대중으로 만들어보자.

- 대의체계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 단대 여학생회 운영위, 과여부 세로모임, 새내기 여대표 세로모임까지 대의체계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층을 묶어내면서 기층을 강화해나가자

2. 학우들과 소통하며, 대중이 주인되는 여학생회를 만들어내자!

학생회 조직은 그야말로 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 열심히 사업하고 투쟁을 벌여내는 조직이다. 여학생회도 마찬가지이다. 학우들 속에 살아 숨쉬면서 여학우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들을 자신의 삶에 주인공체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여학우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과 투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과의 소통이 기본이다.

- 일상적으로 학우를 만나자

* 직접만남 - 강의실 선전, 이동 총여학생회, 설문지 사업, 인터뷰 사업

* 매체를 통한 만남 - 메일링 리스트, 인터넷 사업(홈페이지나 카페 활성화, 학내 게시판에 글 올리기), 언론에 보도자료 보내기, 학내 방송국·학보사·교지편집위원회에 투고사업, 성명 논평을 통해 총여학생회 입장 제출하기

* 소식지 발간, 학내 여성 게시판 만들기

-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담은 사업을 진행하자

3. 새내기 시양

4. 범미반전 · 615 공동선언까지 이행

2004년은 반미반전투쟁을 총결산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 가치들과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해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책동은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이후로 급격히 전세계적으로 그 횡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미 지도자 모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권을 고민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시 낙선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북에 대한 전쟁책동, 대북 고립압살책동으로 한반도까지 집어삼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4돌을 맞는 올해,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사상 유례없는 한판 대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대결구도에 있어서 미국을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그 해답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가치를 든 민족공조에 있다.

미국과 미국에 붙어 우리 민족들을 탄압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친미애국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물리쳐나가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투쟁에 있어서 여성들 역시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여학생회 단위 역시 반미반전 · 615 공동선언까지 이행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은 물론이고 여학생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벌여가자

- <여성과 통일>, <여성과 전쟁>에 대한 의식화 사업 진행

- <이북여성바로알기> 사업

- 반미반전 여대생 선언운동

- 2회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 대구 여성통일한마당

5. 총선투쟁 승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하자!

6. 600차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하자!

212 파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초 증언자인 정서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널리 알려 수많은 역사를 청산하라>고 하셨다. 3월 17일이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14년간의 수요시위가 600차를 맞이한다.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14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전 국회에서는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이 통과되었다. 친일의 후손들이 그대로 친미로 남아서 국회에 드물거리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우리의 왜곡된 역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 관련 문제까지 불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 현상까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600차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높여내는 사업과 함께 학우들 사이에서 반일투쟁으로까지 상승시켜 내야한다.

- 학내 거점 수요 1인 시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재가 자원활동 사업

- 나눔의 집 방문사업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의 연대투쟁

7. 민중생존권 쟁취 및 여성연대사업

우리의 연대투쟁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농활 등의 당면 사업에서 필요에 의한 실무적 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대에 대한 관심을 바로세우고 일상적으로 연대사업을 벌여가자.

· 연대 단위 방문 및 간담회

- 1:1:1:1 연대(여학단위 : 여성노조 : 여성농민회 : 여성단체)로 기층연대를 튼튼히 하자

과/단체 여학생회가 있는 경우는 과별로 단대별로 1개과/1개단체 1연대단체 사업을 벌여보자

- 여성농민

여성농민반

- 여성 노동자

지역의 여성노동사업장 방문과 지지사업

- 여성 캠페인

대구 지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내기 위해 1달에 1번씩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학단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가자

8.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을 벌여나가기

대학 사회를 성폭력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성폭력, 여성차별, 군사주의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 학우들의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는 사업에서부터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생활문화운동 영역으로까지 넓혀보자.

모꼬지, 대동제 등의 대중사업이나 공동체 문화 안에서 여성차별 군사주의와 성역할 고정을 타파하기 위한 생활문화운동으로 투쟁을 다양하게 벌여가자.

- 일상적인 기획선전

- 상시적인 교양사업(강연회, 영화제, 설문조사 등)

- 모꼬지 생활 수칙 제안하기

- 과학생회 내 성차별, 군사주의 문화 척결을 위한 자치 규약 제정하기

* 반성폭력

- 반성폭력 학칙 재개정 투쟁

-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테이블

* 반가부장제

- 호주제 철폐

- 성매매 척결 투쟁

9. 광범위한 조직·사상운동을 전개하여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 사상운동을 전개하자

**** 여학일꾼

- 여학생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자!!

여학생회 일꾼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여학우들의 삶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들이 생활하는 부분을 꿰뚫고 있는 것이 총여학생회여야 한다.

- 여학생 운동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으로 여학생 운동을 신념화하자!

여학생 운동을 하는 일꾼 스스로도 여학생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항상 깊이 사색하는 기풍을 가지자.

****대경총련 일꾼

대경총련 차원에서 여성운동을 이남사회의 변혁과제로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며,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식 정도도 낮다. 여학단위에서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대경총련 일꾼들 역시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어 새 시대, 새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하자

- 여학생 운동 토론회 or 교양학교

**** 학우대중

여학생운동을 학우들의 대중적인 지지와 참여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에 대한 의식화가 필수적이다. 여학우들이 스스로 여성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여학생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참여가 있을 수 있다.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강좌사업, 교양사업을 통해서 학우들의 인식 정도를 높여내자.

- 대경여대협 2주 칼럼

- 조직체계를 잘 세워가고 운영하자

**** 총여학생회 조종레 정례화

총여학생회의 운영에서 조종레가 가장 기본이다. 조레를 통해서 하루의 생활을 조직하고 학우들을 만날 계획을 세워가고 조레를 통해서 하루를 총화하고 반성하면서 다음날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조종레를 꼭 해나가자.

**** 대경여대협 대표자 회의 및 핵심일꾼 모임의 정례화

대경여대협의 대표자 회의와 핵심일꾼 모임을 통해서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운동을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

10. 새여학생운동 실행하기!!!

- 광범위한 대중투쟁의 틀을 마련하자

- 대담한 사업을 벌여가자

<시기별 흐름>

3.8 여성의 날

대경여대협 총회

3.17 600차 수요시위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한마당, 대경총련 출범식, 대경여대협 출범식

4.15 총선

전여대협 총회

봄농활

전여대협 출범식

농활

2회 여성동일대회

15기 대경여대협 총노선 기초 토론안

★★ 2004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 >> 2004년은 대경여대협을 바로 세워야 하는 해이다.
- >>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 건설?강화의 요구성이 절실한 해이다.
- >> 여학생 운동 대중화로 대경여대협을 강화하고 새여학생운동을 실현해야 하는 해이다.
- >> 사상운동을 전개하여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주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해이다.

★★ 총적방향(총기치)

★★ 15기 대경여대협의 과제

1.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을 건설? 강화하기!!

대구경북지역의 총여학생회들의 조직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여학생회가 과/단대 여학생회 형태의 기층을 가지지 못한 채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사업과 투쟁은 총여학생회만을 위한 사업과 투쟁이 아니라 학우들에 근간한 사업과 투쟁이어야 하는 것이지만 기층이 없는 상황에서 총여학생회만으로 학우들에 근간한 사업을 벌여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여학생 운동은 여학생회 일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 대중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 대중과 함께 여학생회를 꾸리고 여학생 운동을 하려면, 여학우들 바로 곁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과 여학생회/과 소모임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들의 현재 여학생 운동의 현황에서 기층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층을 건설?강화하는 것은 여학생회 강화?발전에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 과/단대 여학생회 건설?강화 사업
 - ▶ 과/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 과/단대 여학생 일꾼 모임, 과/단대 여학우 모임
 - ▶ 1개과, 1단위 모범창출사업

- 소모임 사업
 - ▶ 1간부 1소모임 갖기 운동

여학생회 간부는 자기 대중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사업을 풀어내고 투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자기대중을 만들어보자. 소모임을 만들고 잘 운영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굳이 만들지 않고도 있는 소모임을 잘 발동해서 자신의 대중으로 만들어가도 좋다. 소모임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층 여학우들을 만나고 조직해내면서 소모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대중으로 만들어보자.

- 대의체계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 단대 여학생회 운영위, 과여부 세로모임, 새내기 여대표 세로모임까지 대의체계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층을 묶어내면서 기층을 강화해나가자

- 과 여학생회 운영 해설서
 - 추후제출

2. 학우들과 소통하며, 대중이 주인되는 여학생회를 만들어내기!!

학생회 조직은 그야말로 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 열심히 사업하고 투쟁을 벌여내는 조직이다. 여학생회도 마찬가지이다. 학우들 속에 살아 숨쉬면서 여학우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들을 자신의 삶에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여학우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과 투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우들과의 소통이 기본이다.

- 일상적으로 학우를 만나자
 - ▶ 직접만남 - 강의실 선전, 이동 총여학생회, 설문지 사업, 인터뷰 사업
 - ▶ 매체를 통한 만남 - 메일링 리스트, 인터넷 사업(홈페이지나 카페 활성화, 학내 게시판에 글 올리기), 언론에 보도자료 보내기, 학내 방송국?학보사?교지편집위원회에 투고사업, 성명 논평을 통해 총여학생회 입장 제출하기
 - ▶ 소식지 발간, 학내 여성 게시판 만들기

-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담은 사업을 진행하자

3. 새내기 사업, 제대로 해보기!!

- 전여대협 새내기 사업계획 참고

4.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까지 이행 투쟁을 벌여가기!!

2004년은 반미반전투쟁을 총결산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들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해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책동은 명문없는 이라크 전쟁이후로 급격히 전세계적으로 그 힘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미 지도자 모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거부권을 고민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시 낙선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북에 대한 전쟁책동, 대북 고립압살책동으로 한반도까지 집어삼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4들을 맞는 올해,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사상 유례없는 한판 대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민족간의 대결구도에 있어서 미국을 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그 해답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든 민족공조에 있다.

미국과 미국에 붙어 우리 민중들을 탄압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친미애국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물리쳐나가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투쟁에 있어서 여성들 역시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여학생회 단위 역시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까지 이행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은 물론이고 여학생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벌여가자

- 핵심사업
 - ▶ 대구 여성통일한마당
 - 계획서 추후 제출

- 2회 남북통일여성대회 개최를 위한 투쟁
- <여성과 통일>, <여성과 전쟁>에 대한 의식화 사업 진행
- <이북여성바로알기> 사업
- 반미반전 여대생 선언운동

5. 총선투쟁 승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하자!!

총선은 우리에게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6.15 공동선언의 실현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가는 공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6. 600차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하자!!

212 파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초 증언자이신 정서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널리 알려 많은 은 역사를 청산하라>고 하셨다. 3월 17일이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14년간의 수요시위가 600차를 맞이한다.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14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전 국회에서는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이 통과되었다. 친일의 후손들이 그대로 친미로 남아서 국회에 드글거리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우리의 왜곡된 역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 관련 문제까지 불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 현상까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600차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높여내는 사업과 함께 학우들 사이에서 반일투쟁으로까지 상승시켜 내야한다.

- 핵심사업
 - ▶ 전국동시다발 600차 수요시위
 -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대경여대협이 직접 만드는 수요시위(9월 경)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제(가안)

- 일상적 대중사업
 - ▶ 학내 거점 수요 1인 시위(방도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재가 자원활동 사업
 - ▶ 나눔의 집 방문사업

7. 민중생존권 쟁취 및 여성연대사업

우리의 연대투쟁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농활 등의 당면 사업에서 필요에 의한 실무적 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학생이 노동자?농민계급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노동자?농민과 함께 이남 사회 변혁의 주체 세력으로 서 나가는 연대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일상적으로 연대사업을 벌여가자.

- 연대 단위 방문 및 강담회
- 1:1:1:1 연대(여학단위 : 여성노조 : 여성농민회 : 여성단체)로 기층연대를 튼튼히 하고 과/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경우는 과별로 단대별로 1개과/1개단대 1연대단체 사업을 벌여보자

- 여성농민
 - 전여대협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2003년 농활이 전농/전여농/한총련/전여대협의 4자 연대의 관점을 가지고 4자 연대의 틀을 마련하였다. 단순히 농활에 있어서 분반활동에서 여성농민반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4자 연대의 관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군단위와 각 대학단위의 4자 연대를 실현하자.

- 여성 노동자
 - ▶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 대구 지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내기 위해 1달에 1번씩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학단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가자. 또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자.
 - ▶ 지역의 여성노동사업장 방문과 지지사업

8. 지속적이고 이성이 아닌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을 벌여나가기

대학 사회를 성폭력의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성폭력, 여성차별, 군사주의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 학우들의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는 사업에서부터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투쟁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생활문화운동 영역으로까지 넓혀보자. 모교지, 대동제 등의 대중사업이나 공동체 문화 안에서 여성차별 군사주의와 성역할 고정관념 타파하기 위한 생활문화운동으로 투쟁을 다양하게 벌여가자.

- ▶ 일상적인 기획선전
- ▶ 상시적인 교양사업(강연회, 영화제, 설문조사 등)
- ▶ 모교지 생활 수칙 제안하기
- ▶ 과학성회 내 성차별, 군사주의 문화 척결을 위한 자치 규약 제정하기

- 반성폭력 투쟁
 - ▶ 학우들과 함께 벌여가는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 투쟁

대구경북지역에는 아직도 반성폭력 학칙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허술하기 그지없는 학칙이 대부분이다. 반성폭력 학칙 투쟁은 학내 반성폭력 투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투쟁이다. 하지만 반성폭력 학칙 투쟁은 법제적인 측면이 많고 전문적인 연구를 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 학우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본관과의 협상 테이블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 투쟁은 그 어떤 것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학우들과 함께 합의하는 과정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 투쟁을 벌여가자.

- ▶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테이블
 - 2003년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한해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흐름이 놓치지 않고 가져갔었던 성과점이 있다. 대구경북지역 반성폭력 테이블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